

# 건강검사에서 가장 받고싶은 것은 간기능 검사

생활이 복잡다단해지면서, 사람들의 건강문제 특히 성인병의 문제는 한층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만큼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의외로 적다.

건강관리협회가 '89년에 이어, 본회 내원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알 수 있었는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사람들이 매스콤을 통해 여러차례 알려진 주요사망원인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매스콤의 국민 건강에 대한 역할을 실감케 해 주었다.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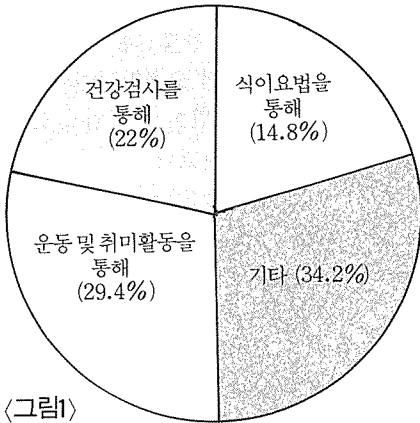
현대 질병의 총칭을 성인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최근들어 성인병이 급증하고 있으며, 성인병은 현대인의 주요 사망 요인으로 심신건강과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만큼 달갑지 않게 다가와 있다.

이러한 사회 추세 속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려는 사람들도 서서히 늘어가고 있지만, 질병 예방에 따른 건강관리의 이상적인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도 국민보건 의식 수준이나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대처가 미미한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사후 약방문격인 그릇된 건강관리 의식이 만연해 있어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국민 보건 계몽이 요구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89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비만도 측정 및 기왕력과 원인, 가족력과 질환, 식사습관 등을 위주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사항을 파악해 보았다.



(그림1) 평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2. 본론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35.6%, 30대가 31.4%로 작년에 비해 14%가 증가되었으며 그외에 50대, 20대, 60대 이상, 10대의 순서로 나타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30-40대가 성인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게 된 비만도 측정에서는 500명 중 13.6%인 68명이 비만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여자가 43명으로 남자 25명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50대가 비만의 위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52.6%로 월등히 높았으며 회사원 17.8%, 상업 12.6%, 학생 3.2%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적 여유를 활용하여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주부에 비해 회사원, 상업인, 학생들의

검사율이 저조한 것은 바쁜 일과와 공부로 인하여 건강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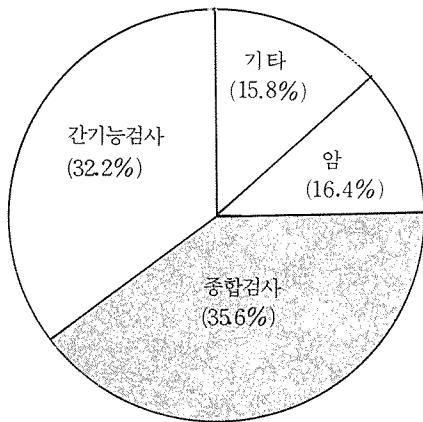
평소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 및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은 29.4%, 건강검사를 하는 사람은 22%,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이 14.8%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건전한 방향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 운동 및 취미활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경우는 '89년의 41.4%, 20.5%보다 저하되었으나, 그 대신 건강검사를 통한 건강관리는 '89년에 비해 5% 정도 증가하여 건강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사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1.4%가 이상을 느낄 때에 검사를 한다고 대답했고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38%나 되었다. 년1회 검사를 하는 사람은 18.8%로 예년에 비해 매년 검사를 받는 경우가 4% 정도 늘어났을 뿐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신체에 이상이 있어야 검사를 하거나 검사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정기건강 검사와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계몽의 필요성을 새삼 절감케 했다.

건강 검사시 하고 싶은 검사 종목에 대한 물음에는 종합검사를 받고 싶다가



〈그림2〉  
건강검사시 우선 검사 하고 싶은종목은 ?

35.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간기능검사 32.2%, 위장검사가 19.2%, 암검사가 16.4%의 순이었으며 그외 당뇨병, 신장질환, 신장질환 등이 있었다.

특히 간기능 검사의 경우 30대에서 50대의 남자가 많았다.

이 결과는, 주요 관심 검사 항목이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10대 사망 원인 중 주요 성인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간기능이나 위장질환의 경우 그 위해나 증상 등에 대해 매스컴을 통한 계몽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결과라고 보여진다. 여기서 건강 관리 계몽 활동에 있어서의 매스컴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61.4%가 스스로 성인병의 자각증상을 느끼거나 질병을 앓고

있다고 응답해 왔는데, 위장질환이 18.6%로 가장 많았으며 간장질환이 10%, 심장질환이 6.8%, 그외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암, 신경통, 빈혈,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을 앓게된 원인에 대해서는 26.7%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대답했으며, 자신도 모르게 앓게 된 경우가 21.5%, 술·담배가 14.0%, 식생활 문제가 12.1%,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11.7%, 유전적 원인이 2.0%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문화적, 의식주 환경에 따른 여러 성인병 유발 원인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가족 중 동일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의 29%가 가족 중 적지 않게 여러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은 적이 있다고 대답해 개개인의 건강관리 뿐아니라 가족단위의 건강관리도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질환별로는 위장질환이 28.3%, 고혈압이 15.2%, 빈혈 및 간질환이 각각 13.1%, 당뇨병이 11%, 심장질환이 10.3%, 신장질환이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골고루 섭취한다가 52.8%으로 여자가 162명, 남자가 102명으로 여성에 있어 골고루 섭취하는 경향이 많았고 채식을 좋아한다가 32.6%로 이중 여자가 105명, 남자가 58명으로 역시 여자가 채식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의 경우에 있어서는 14%

인 70명으로 남자 36명 여자 34명등 별 차이없이 나타났다.

또한 하루 세끼 꼭 지켜서 먹는 경우가 68.8%으로 이중 여자가 201, 남자가 141명으로 여자가 많았고 한끼 이상 거르는 사람도 29%로 여자 93명, 남자 52명으로 역시 여자가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에서 보면 성인병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인 식생활 습관의 경우에 있어 대체로 양호한 편임을 알 수 있으나 아직도 채식 및 육류등의 편식 습관을 가진 사람이 46.6%나 되고 또한 한끼 이상 거르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볼 때 영양 불균형에서 오는 여러 질환, 특히 위장질환등의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

끝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개별적인 방법에 대해 물었는데 영양제 및 한약 복용 등 보조차원의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20.4%나 되어 아직도 상당수가 약물에 의해 건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여성의(주부)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집계 되었다.

그 다음으로 건강식품 섭취가 15.6%인 것으로 나타나 매스컴 상의 건강식품 불확신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강식품을 애용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 체중 조절의 경우 14.4%로 역시 여성의 경우가 높았는데 이는 자칫건강을 위한 체중조절을 넘어서 무리한 다이어트나 운동, 절식등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협을 갖

고 있어 바람직한 체중 유지법에 대한 계몽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민간요법의 경우 6.2%로 나타났다.

### 3. 결론

성인병에 대한 위해성이라든가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기 및 정기 검사를 통한 바람직한 건강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음은 오히려 성인병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한편으로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는 문제점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사후 약방문 격의 그릇된 사고 방식에 대한 홍보 계몽을 적극 전개하여 국민보건 의식 고취 함양에 계속적인 주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사사업의 확대 및 개선으로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건강검사를 받아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이루어 나갈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성인병이란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 어느 한가지만이 아니므로 스트레스 해소나 운동 및 취미 활동을 통해서나 식이요법등을 통해서 원인의 예방이 완전히 이루어 지리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사람들 자신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때 정기적인 건강검사로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길이 현명한 건강 유지의 첫 디딤돌 일 것이다.